

달랐지. 아아, 애통하지 않나! 내 여기 있는 나무며, 샘터며, 바위며 하던 것들을 부르던 수천 개의 다정한 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았는데, 지금 이곳은 흥흥하니 다 무너지고, 그리스의 어느 들판처럼 그저 폐허와 애뜻한 추억 속 이름만 남아 전할 뿐이라네.

그래도 이 암벽 안쪽에 자리했던 모든 곳들 중에서 ‘비르지니의 쉼터’라 불리던 곳보다 더 아늑한 곳은 없었어. ‘우정의 전망’ 바위 밑으로 풀이 하나 움푹 패어 있는데,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보드라운 폴로 뒤덮인 초지 한가운데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지. 마르그리트가 풀을 낳았을 때, 나는 누가 가져다 준 인도산 코코넛 열매를 그녀에게 선물했다네. 마르그리트는 그 열매를 아까 그 물웅덩이 언저리에 심고, 거기서 나무가 싹을 틔우면 자기 아들이 세상에 나온 원년이 되는 날로 삼고자 했지. 라 투르 부인도 마르그리트를 따라, 비르지니를 낳자마자 비슷한 생각으로 그곳에 코코넛 열매를 하나 더 심었네. 그렇게 두 개의 열매에서 두 개의 코코넛야자나무가 싹텄고, 그것은 이 두 가족의 모든 내력이 담긴 기록 보관소가 되었어. 그렇게 하나는 폴의 나무, 다른 하나는 비르지니의 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지. 둘 다 어린 주인들과 같은 속도로 자랐고, 키는 약간 달랐지만 십이 년이 지나자 두 가족이 살고 있던 오두막보다도 더 커졌다네. 이미 두 나무의 잎사귀들은 하나로 얹혀 있었고, 가지에 매달린 어린 코코넛 송이들은 샘